



##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은 '길, 사람, 소통'을 주제로 매년 9월에서 10월, 원주 전역을 춤바람으로 들썩이게 하는 축제다. 이 축제는 국내 최대·최장 규모의 시민참가형 거리퍼레이드 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축제'로도 선정됐다. 축제 기간 원주 곳곳은 춤바람으로 휘몰아친다. 원주의 중심가인 원일로를 시작으로 축제의 중심지인 댄싱공연장은 마칭밴드, 치어리딩, 무술, 방송 댄스, 현대무용, 민속춤, 발레 등 다양한 퍼포먼스 공연으로 채워진다.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뛰어난 실력을 갖춘 팀과 해외의 많은 팀이 참가해 무대를 빛낸다. 원주에 주둔한 36사단 국군장병들도 젊은 끼를 마음껏 발산한다. 무엇보다 댄싱카니발을 이끄는 핵심은 원주시민이다.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며 배우는 수많은 원주시민이 40~50명씩 팀을 이뤄 댄싱카니발의 100m 런웨이 무대를 채우는 것은 축제의 백미다. 2010년까지 진행된 군악 축제 '원주국제따뚜'의 뒤를 이어 원주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은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은 2011년 군과 함께하는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이 그 시작이었다. 시민 2천800여명이 중앙시장에서 따뚜공연장까지 길놀이를 하는 '시민퍼레이드'는 댄싱카니발로 이어졌다.

2012년부터 원주문화재단이 주관하기 시작한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은 댄싱카니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본격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2015년 다이내믹 페스티벌의 핵심콘텐츠인 댄싱카니발을 전면으로 내세워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에 이르렀다. 2018년에는 국내 참가팀 86개, 1만1천395명, 해외 참가팀 38개, 1천605명, 방문객 추산 53만여명을 달성해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축제로 성장했다. 2019년에는 국내 참가팀 126개, 해외 참가팀 34개 팀으로 축제의 성공과 콘텐츠의 풍성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2015년 한국축제박람회에서 최우수 축제 브랜드상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 축제 유망축제로 두 차례(2016, 2018), 우수축제로 두 차례(2017, 2019) 선정됐다. 등급제가 없어진 2020~2021년에는 문화관광 축제 35개 중 하나로 선정됐다. 댄싱카니발은 갈수록 시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어 원주시민만 1만명 이상 참가하는 시민들의 축제다. 원주를 대표하고 원주의 브랜드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통로로서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 될 것을 기대한다. ♣

# 원주대표 축제 '댄싱카니발'

# 원주를 넘어 대한민국으로! 세계로!

